

모두 발언

2026. 3. 4. (수) 10:00

저축은행중앙회(18F)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입니다.

어느덧 만물이 가지개를 켜는 희망찬 3월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님과

여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6년 금융감독원의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저축은행 업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II

저축은행의 소명과 변화의 필요성

잘 아시다시피, 저축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PF, 고위험 대출 등에 집중하였고,

이후 경기가 둔화되면서

급격하게 건전성이 위협받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업권의 적극적인 부실PF 정리 노력으로
연체율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연체율(%) : ('23년말) 6.55 → ('24년말) 8.52 → ('25.12월말^{잠정}) 6.07

저축은행 건전성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서민·중소기업, 지역 경제를 받치는
튼튼한 동반자로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Ⅲ 함께 나아갈 방향

먼저, 서민과 지역경제로의 '상생·포용금융'의 물길을 넓혀 주십시오.

저축은행의 진정한 경쟁력은
지역의 고객과 직접 마주하며 쌓아온
관계형 금융과 지역 밀착형 영업에 있습니다.

단순한 담보나 숫자가 담지 못하는
차주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발견하는
여러분만의 독보적인 안목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서민,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며

저축은행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영업 현장 고충에 귀를 기울이며,
규제 합리화* 등 저축은행의 영업여건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예) 저축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대출에 대해 예대율 산정시 인센티브 제공 등

둘째, 현장 중심의 소비자보호를 실천해 주십시오.

저축은행의 주이용고객인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채무조정요청권**처럼
고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 금리 변경시 기준·가산금리 변동 현황,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SMS로 안내하여 변경 전후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26.2월)

** 채무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체발생 5영업일
이내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개선('26.1월)

아울러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대출모집수수료를 합리화하여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저축은행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질 때
저축은행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셋째, '책임있는 건전경영'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힘써 주십시오.

올해 저축은행업권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제도와
여신심사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주시길 바랍니다.

*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26.7.2.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 의무

특히 대형 금융회사의 방식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별 사업구조와 조직에 부합하는
'맞춤형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저축은행만의 실효성 있는 책임경영 모델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25.12월말 79개사)은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5.5~13.6조원, 5개사),
중형사(1~4.3조원, 26개사), 소형사(35억원~8천3백억원, 48개사)간 규모 격차가 상당

아울러, 충분한 대손충당금과 여유자본은
어떠한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을 최후의 보루인 만큼
건전성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IV 맺음말

오늘 이 자리가
저축은행이 서민 경제의 핵심적인 금융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금융현장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걸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